

'초다양성'과 무형문화유산의 변모: 로테르담 웨스트-크라위스카더의 사례

알베르트 판 데르 제이던(Albert van der Zeijden)

'초다양성'과 무형문화유산의 변모: 로테르담 웨스트-크라위스카더의 사례

● 알베르트 판 데르 제이던(Albert van der Zeijden)
네덜란드 소재 네덜란드 무형유산센터

개요

'초다양성'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무형유산 보호와 관련된 새로운 딜레마를 안겨준다. 서유럽으로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모든 주요 도시의 민족 구성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러한 변화는 공동체의식과 함께 무형유산의 개념까지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저자는 초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도시 구역인 로테르담 웨스트-크라위스카더의 사례 연구를 시작으로, 초다양성이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소속을 만들어내고 이 속에서 무형유산의 다양성이 공유의 대상으로 자리잡게 된다고 주장한다. 로테르담에서는 *디왈리(Diwali)*, *케티코티(KetiKoti)*, 춘절(春節)과 같은 민족 또는 종교 축제가 지속적이고 '상호적인 공간 창출'을 통해 모두가 공유하는 공동의 축제로 발전해 왔다. 초다양성은 무형유산의 개념은 물론 공동체의식에도 활기를 불어넣게 되는데, 이때 공동체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이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환경에 있는 여러 당사자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된다.

표제어

네덜란드, 초다양성, 다문화주의, 이민, 도시 개발, 웨스트-크라위스카더, 웨스트-크라위스카더 연합, *네덜란드 1국가무형문화유산목록*, 로테르담, 디왈리, 케티코티, 춘절, '블랙 피트', 공유하는 과거 공유하는 미래.

서문

네덜란드의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는 *네덜란드국가무형문화유산목록*에 네덜란드 무형유산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방과 도시가 포함된 네덜란드의 모든 지역, '전통적인' 사회 관습 및 젊은 세대의 사회적 관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이민 집단(의 후손)의 무형유산을 포함해 (과거와 현재의) 민족 다양성을 반영하는 사회적 관습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무형문화유산목록*의 작성을 담당하는 네덜란드 무형유산센터(Dutch Centre for Intangible Heritage)는 민족적 다양성이 높은 도시 구역인 로테르담 웨스트-크라위스카더의 무형유산이 후보로 신청된 데 대해 크게 기뻐했다. 하지만 이 사실은 네덜란드 무형유산센터에 다음과 같은 딜레마도 안겨주었다. 160개 이상의 민족이 거주하는 고도로 다양화된 이 지역에서 무형유산이란 무엇일까? 무엇을 보호할 수 있고 또 보호해야 할까? 다양화가 고도로 진행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호해 낼 수 있을까? 이는 비단 웨스트-크라위스카더만의 문제 만이 아니다. 서유럽의 대부분의 대도시는 인구 구성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는 이민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통합과 공동체, 더 나아가 무형유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데, 유네스코 *협약*에서 공동체는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와 보호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무형유산을 지켜나가는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이 일단 등재 신청서를 작성하면 별도의 감사위원회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자격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유네스코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의미의 무형유산, 즉 세대에서 세대로 계승되고 있는 유산인가? 해당 공동체에 정체성과 연속성을 부여하는 유산인가? 해당 유산을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직접 신청한

것인가? 등을 확인한다. 등재 신청서의 핵심적인 부분은 언제나 변함없이 보호 계획이다. 공동체는 해당 유산의 장단점을 도표화하고 앞으로 이러한 *무형유산* 요소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보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 모든 판단의 근거는 유네스코 *무형유산목록*의 후보 등재 기준에서 나온 것이며, 이 경우 공동체의 참여와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도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형태의 무형유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개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

웨스트-크라위스카더 연합이 신청한 무형유산은 웨스트-크라위스카더의 문화적 다양성이 잘 드러나고 웨스트-크라위스카더 공동체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사회적 관습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관습은 주로 *케티코티*, 중국의 춘절, 힌두교의 *디왈리* 등 해마다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 등이었다. 춘절과 *디왈리*에는 분명한 민족적 및 종교적 배경이 존재하고, *케티코티*는 수리남과 네덜란드령 앤티리스제도과 같은 과거 네덜란드 식민지에서 1863년 노예제도가 폐지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해마다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 행사는 수리남이나 앤티리스제도 출신의 네덜란드 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이들 축제는 웨스트-크라위스카더에 정착한 특정 민족 공동체와 강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고, 이들에게 강한 정체성과 연속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등재 신청 요건 중의 하나를 충족시킨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사회적 관습의 등재를 신청한 주체가 이러한 전통 관습을 들여온 특정 종교 집단이나 민족 집단, 이를테면 중국 민족이나 힌두교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축제와 기념행사는 웨스트-크라위스카더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을 대변하기 위해 신청된 것이다. *디왈리*와 *케티코티* 같은 축제는 웨스트-크라위스카더 주민 모두가 기념하는 인기 있는 축제로 발전했으며, 하나의 민족

집단이 아닌 웨스트-크라위스카더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을 대변하고 있다. 이 점은 등재 신청서에 함께 포함된 웨스트-크라위스카더의 다양한 음식 문화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어느 특정 민족의 음식 문화가 아니라, 다양한 식료품점과 음식점이 들어선 현지 쇼핑몰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음식 문화 전체이다. 이는 무형유산을 전유하고 경험하는 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흥미로운 현상이다.

등재의 목적은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베스트크라위스카더 전체가 이 문화적 다양성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회적 통합과 교류 촉진에 중점을 둔다. 이는 향후 새로 유입될 인구에게 필요한 공간과 여지를 남겨 두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웨스트-크라위스카더 연합은 이 지역의 민족적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민족 기업가들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한 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초다양성과 무형유산

웨스트-크라위스카더는 로테르담의 한 지구로, 160개 이상의 민족이 거주한다. 본 저자는 스티븐 버토벡(Steven Vertovec)의 초다양성 개념을 활용하여, 웨스트-크라위스카더를 상호적인 공간 창출을 통해 무형유산의 가치가 구현되는 문화적 공간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초다양성은 공동체를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얽혀 있는 가변적인 네트워크로 바라보는, 보다 '유동적인' 해석을 필요로 한다.

로테르담 중앙역 부근에 위치한 웨스트-크라위스카더는 '올드 웨스트(the Old West)'의 쇼핑 변화가로, 주민들의 다양한 배경과 상점의 다문화적 분위기로 인해 로테르담의 문화적 다양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매장의 70%는 다양한 출신지의 이민자들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중국인 상점이 눈에 띄며, 그 자체로 로테르담 차이나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올드웨스트'

에는 지배적인 민족 집단이 없다. 2007년 통계(<https://zoek.officielebekendmakingen.nl/kst-30995-30-b5.pdf>)에 따르면, 인구의 27%는 원주민이고, 수리남인이 15%, 터키인이 14%, 모로코인이 13%, 카보베르데인이 7%, 네덜란드령 안틸리스제도인이 3%이다. 웨스트-크라위스카더의 민족 구성을 보면, 확연히 구분되는 '전통다운' 전통을 갖고 있는 하나의 동질적인 '전통' 사회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무형유산은 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경제적 이민자이든 세계 각지의 난민이든, 새로 유입되는 인구는 웨스트-크라위스카더에 전통도 함께 들여와 이곳에 '외지인' 특유의 분위기를 더하게 된다. 50년대와 60년대의 경제적 이민자들은 주로 터키, 스페인, 모로코와 같은 몇몇 소수의 국가에서 이주해 왔지만, 90년대에 시작된 난민 사태로 이러한 추세는 크게 바뀌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발칸 위기 이후에 들어온 발칸 반도의 이민자들부터 비교적 최근의 위기로 들어온 에티오피아와 시리아의 난민들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새로운 이민자들이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일명 '다문화주의' 현상, 다시 말해 다양한 '민족 공동체'가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네덜란드의 문화를 풍요롭게 만들면서 서로 어우러져 평화롭게 살아가던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웨스트-크라위스카더 같은 지역에서는 어느 한 집단이 주류를 이루지 않고 수많은 민족이 각각 소수로서 살아간다. 이는 네덜란드 원주민도 마찬가지이다.

서유럽의 모든 대도시권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스티븐 버토벡은 '초다양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Vertovec, 2007, Geldof, 2016도 참조). 버토벡에 따르면 초다양성은 많은 민족이 서로의 문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다문화주의'의 최상위 레벨일 뿐만 아니라, 갈수록 심화되는 세계화 과정에서 우리의 공존 방식과 문화의 동태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기도 하다. 과거에도 무수히 많은 접촉과 교류가 있어 왔지만 요즘은 이러한 접촉과 교류가 일상이 되었다. 호미 바바(Homi K. Bhabha)와 같은 탈 식민주의 사상가들은 '제3의' 공간을 계단통에 비유하면서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이 계단통에서 만나 상호적인 사회 공간을 만든다고 보았다(Bhabha, 1994, 5쪽, Bhabha, 2011도 참조). 이런 사회적 공유 공간은 로테르담과 같은 대도시권에서 특히 잘 관찰되는데, 바바는 이를 '접촉지대'로 불렀다.

상호적인 공간 창출

중요한 것은 수많은 민족이 공존하는 이 새로운 상황에서 무형유산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갖게 되고 이 경우 동질성이 아닌 다양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웨스트-크라위스카더의 사례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다양성은 공유의 대상이다. 문화적 뿌리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디왈리*, *케티코티* 및 춘절과 같은 다채로운 축제를 비롯해 다양한 식료품점과 음식점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웨스트-크라위스카더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공동의 행사이자 상징이 되었다. 네덜란드 목록에 신청된 유산이 주로 공개적인 행사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디왈리*, *케티코티* 및 춘절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축제이다. 로테르담 외에서도 이런 현상은 목격된다. 파리와 같은 도시를 대상으로 이러한 현상을 연구한 사례가 이미 존재하는데, 스위스 기반의 민족학자 모니카 잘츠브룬(Monika Salzbrunn)이 초다양성을 자랑하는 파리 내의 벨비유(Belleville) 지구를 연구했다(Salzbrunn, 2015). 그녀는 다양성을 기념하는 새로운 형태의 다민족 행사로서 다채로운 *바베스투르*(Barbès Tour)와 같은 공동 축제가 생겨나는 데 주목했다. 이 새로운 축제가 런던 노팅힐 카니발에서 강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유럽 전역에서 이러한 추세를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잘츠브룬은 *상호적인 공간 창출*이라는 개념을 소개했는데, 이는 로테르담의 웨스트-크라위스카더처럼 초다양성을 띠는 지역의 무형유산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초다양성의 측면에서 무형유산을 바라볼 때 관찰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웨스트-크라위스카더의 무형유산'으로서 자격을 갖추려면 다양해야 되고, 웨스트-크라위스카더의 공공 공간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또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강하게 말하면, 공유 가능성은 '웨스트-크라위스카더의 무형유산'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웨스트-크라위스카더 내 무형유산의 모든 측면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로우(Low)와 로렌스-수니가(Lawrence-Zúñiga)(2003)의 개념을 빌리면, 무형유산은 '구현된 공간'이라는 특정 측면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는 문화적 연구에서 공간과 장소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 문제는 공간과 장소의 인류학(Anthropology of Space and Place) 분야의 인류학자들에 의해 언급되고 있다. 웨스트-크라위스카더의 경우처럼 무형유산은 늘 구체적이고 특정한 문화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관습(Wulf)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이 '구현된 공간'의 개념은 무형유산을 다룰 때 특히 유용하다. 웨스트-크라위스카더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과정은 늘 특정한 사회적 조건, 즉 유네스코 협약에 명시된 것처럼 *무형유산과 관련된 문화적 공간*에서 진행된다.

상호적인 공간 창출에는 늘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관련된다. 이는 웨스트-크라위스카더의 등재 신청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등재 신청서는 웨스트-크라위스카더 연합, 로테르담 시의 합작 투자회사, 도시공간위원회(*gebiedscommissie*), 본스타트로테르담 상인연합회에서 신청한 것이다. 실제로 *네덜란드 국가 목록* 등재를 신청한 상인연합회는 웨스트-크라위스카더의 몇몇 민족 사업가들이 주도해서 만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업가로는 이나이로이(Jinailoo), 프레트 피츠야머스(Fred Fitz-James), 휘노즈 바커(Guno Zwakke) 등을 들 수 있다. 이나이로이는 웨스트-크라위스카더에서 요리 강습회를 하며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서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본인의 웹사이트인 www.hetzesdegeuk.com에서 밝히고 있다. 프레트 피츠야머스는 자신이 설립한 프레트 퀴튀뤼숍

협회(Fred Kulturu Shop Institute)를 통해 수리남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고 사업가로서 이와 관련된 상업적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한다. 휘노즈 바커와 빔 레이니르(WimReijnierse)는 노예제 폐지를 기념하는 연례 행사인 *케이코에*를 들여왔다. 두 사람은 '공유하는 과거 공유하는 미래(Shared Past Shared Future)' 재단의 대표로서, 공유하는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공유하는 과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따라서 '상호적인 공간 창출'은 수많은 이해당사자의 참여 속에서 발전해 나가는 문화 동태성의 과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처럼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은 웨스트-크라위스카더 연합에서 하나로 모인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 과정이 늘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 같은 과정에는 늘 갈등과 대립이 수반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네스코 협약에 도입된 개념을 <<폴크스퀸더(Volkskunde)>> 특별 호(Jacobs, Neyrindk& Van der Zeijden, 2014)에 사용하는 데에는 어떤 형태의 '문화적 중개'가 불가피해 보인다. 웨스트-크라위스카더의 경우 이 역할은 시 정부의 알리서 포르터스(Alice Fortes)가 맡고 있다. 그녀는 본스타트로테르담의 대표인데, 이 단체는 웨스트-크라위스카더를 주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웨스트-크라위스카더 연합의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그녀는 모두를 한자리에 모아 사업을 체계화했다. 문화적 중개인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한자리에 모으고 각 주체 간의 협상 과정을 원활하게 하는 데 꼭 필요한 존재이다.

물론 문화적 중개인에게도 자신의 안건이 있고, 이는 로테르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시 정부가 하는 일에는 많은 위험이 따른다. 20세기 후반에 웨스트-크라위스카더는 범죄율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마약 판매상과 마약 사용자들의 피난처가

되면서 수많은 피해가 생겨났다. 로테르담에서는 대책이 필요한 문제 지역으로 낙인이 찍혔다. 이때 웨스트-크라위스카더를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레저와 소비 지구로 바꾸자는 아이디어가 도출되었다. 이 정책의 목표는 도시의 재생과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었는데, 이는 동일한 문제에 직면한 서 유럽의 다른 도시에서도 많이 추진되는 내용이었으며, 역시나 민족 사업가를 도시 정책의 주요한 구성요소로 활용했다(Van Liempt&Veldboer, 2009, 81~99쪽). 웨스트-크라위스카더 연합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끈끈한 네트워크로 운영되며, 시 정부의 주도로 도시의 개선에 힘쓰고 있다. 공유와 교류는 늘 일정한 형태의 소통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는 실용적인 측면도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현지의 시립 박물관 담당자와 학교 및 도서관의 담당자들이 등재 신청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다. 이들은 넓은 의미에서 문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유한 경험을 나누기 위한 공유 공간도 제공할 수 있다.

협상

상호적인 공간 창출에 집중하는 접근방식은 *포함/배제와 변화* 과정이 협상의 대상이 되는 정치적 영역에 초점을 맞춘다(Salzbrunn, 2015, 186쪽). 중요한 점은 등재에 포함된 것과 포함되지 않은 것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며, 이 경우에도 웨스트-크라위스카더는 흥미로운 예가 된다. 이 경우 등재는 언제나 협상의 과정이며, 이 과정은 어떤 이해당사자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다. 지난해 용 축제는 *케이코에*와 함께 공동 축제로 선정되지 않았다. 중국 춘절을 기념하는 용 축제는 현재 모든 베스트크라위스카더 주민에게 인기 있는 민족 축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2015년에는 예산 부족으로 개최를 취소해야 했다. 2016년에 다시 개최되어 지금은 축제에 포함되었다. 그래피티도 다른 예가 될 수 있다. 그래피티가

포함된다는 것은 의욕적인 신규 유입 인구가 공적 공간에 초대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마도 이 경우에는 얼마간의 숙고와 설득이 필요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피티를 부정적인 대상, 즉 기념비적인 건축 유산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래피티는 그 자체로 어떤 가치를 지닌 대상, 심지어 무형유산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Burdick & Vicencio, 2015). 웨스트-크라위스카더에서 그래피티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낸 계기는 *사업가적 기질을 타고난* 예술가들의 네트워크인 크레토피아(Cretopia)의 설립이었다. 이 일은 크레토피아의 워크숍 및 다른 프로젝트가 열리는 장소인 토코 51(Toko 51)을 그래피티 템펠로 테르담(Graffiti Tempel Rotterdam)으로 변모시킴으로써 이루어졌다. 어떤 의미에서 이는 공공 공간에 그래피티가 등장한 것을 알린 신호탄이었기 때문에 다음 번 *네덜란드 무형유산 목록*에는 그래피티가 웨스트-크라위스카더의 유산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지도 모른다.

협상은 의견 충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한다. 이는 *케티코티*와 *케티코티*의 반대편을 대변하는 블랙 피트(Black Pete)의 사례로 설명될 수 있다. *케티코티*는 과거에 지배적이었던 네덜란드 역사관에 제동을 걸면서 만들어진 축제로, 네덜란드 역사의 부정적인 측면, 즉 네덜란드가 깊이 관여한 노예 무역을 폭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리는 일은 큰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케티코티*는 수리남과 앤티리스제도 출신의 네덜란드인이 강한 유대감을 느끼는 중요한 상징으로 발전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네덜란드 어린이들의 전통 축제인 신터클라스데이[어린이들의 수호성인인 성 니콜라스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역자 주]를 기념할 때 블랙 피트[니콜라스 성인을 돕는 가상의 인물-역자 주]를 제외시키기를 바라는 반대파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무형유산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대립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덜란드 무형유산센터가 웨스트-크라위스카더에서 개최한 한 컨퍼런스에서 케티코티의 대표자는 니콜라스 성인의 조수로서 흑인 분장을 한 블랙 피트가 네덜란드에서 흑인을 경멸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되고 있는데도(Van der Zeijden, 2014 참조) 성 니콜라스 축제가 *네덜란드 무형유산 목록*에 포함된 이유가 무엇인지 내게 물었다. 이 일화는 유산의 등재 과정이 한쪽을 포함시키면 다른 한쪽은 배제된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2014년 로테르담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블랙 피트가 흑인 분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등장했을 때, 전통적인 블랙 피트를 보존하기 위한 상징적 활동으로 검은 인형을 소개하는 시위를 벌였던 '살기 좋은 로테르담(Leefbaar Rotterdam)' 정당의 우파 정치인들은 이를 승리로 여기며 자축했다. 이듬해인 2015년에는 교육위원회 BOOR에서 각 학교에 블랙 피트의 외형을 바꾸라는 공문을 내려 반대편의 지지를 얻어냈다. BOOR는 로테르담에 소재하는 80개 이상의 학교를 아우르는 상급 기관이다.

*케티코티*와 블랙 피트의 사례는 국제적 관점에서 볼 때에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 네덜란드 출신 미국인 인류학자인 얀 네데르베인 피테르서(Jan Nederveen Pieterse)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저서 *'세계화와 문화: 글로벌 멜랑주(Globalization and Culture: Global Mélange)*에서 국가는 판단 기준으로서의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성별, 민족, 종교와 같은 다른 충성 대상으로 교체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Nederveen Pieterse, 2009, 제3장). 케티코티는 아프리카 출신 유럽인이나 대서양 반대편 민족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로, 이는 카리브해 지역의 흑인들도 공유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사실은 2014년에 아프리카 출신 브라질인들의 카포에이라 서클(Capoeira circle)이 유네스코 대표 목록에 등재되고, 2015년에 *콜롬비아의 남태평양 지역 및 에콰도르의 에스메랄다스 주에 거주하는 아프리카 출신 후손들의 가족과 공동체 조직을 끈끈하게 이어주는 마림바 음악*이 등재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특정 집단에 대한 충성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흥미로운 현상이다.

웨스트-크라위스카더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사회가 곧 세계이고 세계가 곧 지역사회이다.

무형유산이 결코 '선한' 것만 아니라는 사실은 블랙 피트의 예에서 확인된다. 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초다양성의 역설 중 하나는 이전에 지배적이었던 문화가 이제는 문화적 다양성을 대표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다. 다양성은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체험되는 사회적 관습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과거에 지배적이었던 '네덜란드' 문화, 즉 독일인들이 말하는 소위 '주도 문화(Leitkultur)'는 특이한 위상을 갖게 된다. 이는 초다양성이 지닌 위대한 역설 중 하나로, '우리'와 '저들'이라는 낡은 이분법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결국은 반대의 형태로 이분법이 다시 적용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즉, 이번에는 다양성이 표준이 되고 이를 벗어난 것은 배제의 대상이 된다. 이는 이전의 주류 문화 집단 내에서 사회적 소속 과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러한 역설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어떻게 사람들은 다양성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편안함을 느낄까? 이처럼 복잡한 사회적 소속 과정은 향후의 연구에서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다.

초다양성의 영향

초다양성의 국가 목록, 더 나아가 유네스코 협약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다양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무형유산이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이 유산을 보호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공동체를 정의해야 웨스트-크라위스카더처럼 다양성을 지닌 지역까지 아우를 수 있을까?

웨스트-크라위스카더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많은 적든 역사적 뿌리가 있는 사회적 공간에서 명확히 정의된 공동체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상황은

이보다 훨씬 더 유동적이다. 신규 유입 인구가 베스트크라위스카더에 들어온 전통은 실제로 역사적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 역사적 과거는 해당 민족 집단이 어디 출신인가에 따라 세계 각지에 산재되어 있다. 다양한 집단이 다양한 전통을 들여오고, 이 전통은 이들에게 *협약*에서 지칭하는 바와 같이 정체성과 연속성을 부여한다. 하지만 새로운 초다양성의 상황에서 이 전통은 웨스트-크라위스카더의 엄청난 다양성을 반영하는 전통으로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매우 다양한 민족들이 집결함에 따라 웨스트-크라위스카더는 동질성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초다양성은 공동체가 느슨한 형태와 험거운 연결로 이루어진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네트워크로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Bauman, 2007 및 Dibbits&Willemsen, 2014 참조)³

웨스트-크라위스카더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각 민족 집단이 저마다의 민족적 전통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키며 지켜나가는 명확히 구분되는 민족 문화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화'란 각각의 상자에 넣어두고 변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다시 말해, '무형유산'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련의 전통으로 구성된 다양한 민족 문화의 집합이 절대로 아니다. 여러 다양한 민족과 전통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새로운 사회적 통합의 역학 속에서 옛 전통과 새 전통이 하나로 어우러져 새로운 다양성을 창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웨스트-크라위스카더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사회적 관습이 해당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또 그렇게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

세 번째 사실은 무형유산의 형성이 저마다 자기 몫을 주장하는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얽혀 있는 복잡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웨스트-크라위스카더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상인연합회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4~5명의 상인들을 만나보고, 몇몇 이념적인 집단이나 자선 단체도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케티코*

E/ 기념행사를 홍보하는 '공유하는 과거 공유하는 미래' 재단도 있고, 중국의 춘절과 같은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축제 이벤트업체와 같은 상업적인 목적의 단체도 있다. 2016년에는 로테르담 시 정부의 행사 방침을 조율하는 조직인 로테르담 페스티벌 (Rotterdam Festivals)에서 중국의 춘절 행사를 개최했다. 이는 현지의 시 정부도 행사를 조직하거나 자금(의 일부)을 조달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노력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일시적 연합체이다. 때로는 새로운 협력자가 나타나고 때로는 오래된 협력자가 떠나기도 한다. 어떤 형태의 무형유산이 포함되고 어떤 유산이 포함되지 않는지는 언제나 오랫동안 숙고한 결과이며, 이는 사회적 갈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특정 형태의 무형유산이 포함되거나 배제되는 과정에 이념적 동기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블랙 피터의 사례에서 입증되었다.

네 번째 사실은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서로 소통하는 복잡한 과정에는 이 모든 당사자를 한자리에 모으는 문화적 중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웨스트-크라위스카더의 경우 시 정부에서 이 역할을 담당했지만, 박물관 및 다른 유산 관련 단체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

초다양성은 무형유산의 개념은 물론 공동체의식에도 활기를 불어넣게 되는데, 이때 공동체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이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환경에 있는 여러 당사자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된다. 네트워크 접근방식은 가능한 한 포용적이어야 하며 의욕적인 새로운 당사자에게 늘 열려 있어야 한다.

국가목록에 대한 특정한 영향 및 유네스코 협약에 대한 일반적 영향

네덜란드 국가무형문화유산목록을 보면 등재된 후보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더 높은 유연성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국가목록에 등재된 후보는 대부분 해당 문화가 존재하는 사회적 공간과 역사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특정한 전통이었다. 일례로, 쥘더르트의 꽃 퍼레이드는 쥘더르트 공동체에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으며, 1936년부터 이 지역의 축제로 자리잡아 왔다. 위트레흐트의 *복스메이르서 파르트(Boxmeerse Vaart)*와 *신트마르텐(Sint Maarten)*과 같은 종교적 전통의 역사적 뿌리는 아주 깊다. 초다양성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다. 1983년에 시작된 로테르담의 여름 카니발은 가톨릭 신앙을 바탕으로 한 네덜란드 남부의 전통적인 카니발 행사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라틴아메리카풍이 약간 가미된 로테르담의 이 여름 카니발은 원래 네덜란드에 정착한 앤틸리스제도 공동체의 행사로 인식되었다. 현재 이 행사는 아주 폭넓은 문화적 다양성을 기념하는 전통으로 자리잡았으며, 앤틸리스제도 출신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터키와 모로코 출신의 로테르담 시민들도 참여하는 행사가 되었다. 이 새로운 축제는 무형유산 형성의 역동성을 잘 보여준다. 웨스트-크라위스카더에서는 새로운 전통이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이로 인해 전통의 확장에 개방적인 편이다. 공동체는 절대 바뀌지 않는 '고정된' 대상이 아니다. 이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언제나 네덜란드의 다른 도시나 심지어 다른 서유럽 국가로 떠날 수 있는 새로운 유동 인구에게도 적용된다. 대서양 건너편 국가들과 일상적인 연락이 가능해지면서 이민 집단은 모국에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유럽 도시로 이주한 친척들과도 연락하며 지내게 되었다. 플랑드르 출신의 사회학자 디르크헬도프(Dirk Geldof)에 따르면, 이는 다른 무엇보다도 스카이프 또는 왓츠앱(Whats App)과 같은 새로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인과 연락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진 일이며, 이 같은 현상은 이들 집단이 모든 형태의 네트워크 기능을 수행하며 공통의 문화 특성을 공유하는 매개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로라 제인 스미스(Laura Jane Smith)와 아카가와 나츠키(Natsuko Akagawa)는 공저 *무형유산*의 초판에서 무형유산을 경험하는 일은 현대 다문화 사회가 겪고 있는 딜레마의 본질적 부분이 되었다고 말한다(Smith & Akagawa, 2009, 5쪽). 유네스코 *협약*에서 이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관점이다. 크리스티나아 메스쿠아(Cristina Amescua)의 언급처럼, 이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Amescua, 2013). 초다양성은 무형유산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무형유산 보호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초다양성은 동질성이 아닌 다양성이 지속적이고 상호적인 공간 창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요구한다. 📖

미주

1. <http://chinafestivalrotterdam.nl/> [Accessed 2 January 2016]. For the lack of funding in 2015, available from: <http://www.rijnmond.nl/nieuws/120583/Chinees-Nieuwjaar-2015-afgelast-wegens-geldgebrek>.
2. <http://cretopia-rotterdam.nl/index.php/2015/10/10/opening-graffiti-tempel-rotterdam-in-toko51/>
3. The concept of communities as networks of stakeholders is not new in the UNESCO Convention. It was introduced during an expert meeting on community involvement in Tokyo in 2006, available from: <http://www.unesco.org/culture/ich/doc/src/00034-EN.pdf>: Communities are networks of people whose sense of identity or connectedness emerges from a shared historical relationship that is rooted in the practice and transmission of, or engagement with, their ICH. (p. 5).

참고문헌

- Amescua, C., 2013. 'An Anthropolog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Migration: An Uncharted Field' in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pringer Verlag, Berlin, p. 103.
- Bauman, Z., 2007. *Liquid Times. Living in an Age of Uncertainty*, Polity Press, Cambridge
- Bhabha, H. K., 1994. *The Location of Culture*, New York: Routledge.
- Bhabha, H. K., 2011.'Cultural policies as catalysts of creativity' in *Echoing Voices. Cultural Diversity: A Path to Sustainable Development. Tenth anniversary of the adoption of the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UNESCO, Paris.
- Burdick, C. andVicencio, C., 2015. 'Popular demands do not fit in ballot boxes' graffiti as intangible heritage at the Iglesia de San Francisco, Santiago?' in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21: nr. 8, pp. 735-756.
- Dibbits, H. andWillemsen, M., 2014. 'Stills of our liquid times. An essay towards collecting today'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Elpers, S and Palm, A. (Hg.), *Die Musealisierung der Gegenwart. Von Grenzen und Chancen des Sammelns in kulturhistorischen Museen*, Bielefeld: Transcript Verlag, pp. 173-194.
- Geldof, D., 2016. *Superdiversity in the heart of Europe. How migration changes our society*, ACCO, Leuven.
- Jacobs, M., Neyrinck, J., and Van der Zeijden, A. (eds.), 2014. 'Brokers, Facilitators and Mediation. Critical Success (F)Actors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me issue *Volkskunde*, 115 (2014) nr. 3.
- Liempt, I. andVeldboer, L., 2009. 'Problematic Areas or Places of Fun? Ethnic Marketing in the Multicultural City of Rotterdam' in Duyvendak, J. W., Hendriks, F., and Van Niekerk, M. (eds.), *City in Sight. Dutch Dealings with Urban Change*,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pp. 81-99.

- Low, Setha M. and Lawrence-Zúñiga, D. (eds.), 2003. 'Locating culture' in *Anthropology of Space and Place: Locating Culture*, Malden, Oxford: Blackwell, pp. 1-47.
- Pieterse, Jan N., 2009. *Globalization and Culture: Global Mélange*, Second Edition, Plymouth.
- Salzbrunn, M., 2015. 'The Place-Making of Communities in Urban Spaces: The Invention of the Village Saint-Louis Sainte Marthe'. In Adell, N., and others (eds.), *Between Imagined Communities and Communities of Practice. Participation, Territory and the Making of Heritage*, Göttingen, Göttingen Studies in Cultural Property, Vol. 8: UniversitätsverlagGöttingen, pp. 185-199.
- Smith, L. andAkagawa, N., 2009. 'Introduction'. In idem (eds.), *Intangible Heritage*, London: Routledge.
- Vertovec, S., 2007. 'Super-Diversity and Its Implications' in *Ethnic and Racial Studies*, 30 (6), pp. 1024-1054.
- Wulf, C., 'The Performativity and Dynamic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vailable from: http://www.ies.stuba.sk/erasmus_meia_euc/file.php/1/Workshops/Presentationsofmodules/Module_1.pdf
- Van der Zeijden, A., 2014. *Sinterklaas in the Netherlands: a beleaguered tradition*, Utrecht, 2014: StichtingNederlands Centrum voorVolkscultuurenImmaterieelErfgoed.
- Van der Zeijden, A., 2014. 'Dealing with Black Pete. Media, Mediators and the Dilemmas of Brokering Intangible Heritage' in *Brokers, Facilitators and Mediation. Critical Success (F)Actors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me issue *Volkskunde*, 115: 3, pp. 349-360.